

42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 D-37



전국의 健脚들 광주로...

(건각)

플·하프·10km·5km 4개 코스 개인 쏠부분 30위까지 시상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3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광주일보가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3·1절 기념 광일단축마라톤대회'의 명칭을 '3·1절 전국마라톤대회'로 변경하고 올 해 세번째로 치르는 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시·도민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개인과 단체의 참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민들은 벌써부터 광일마라톤 홈페이지(http://maraton.kwangju.co.kr)나 전화 등을 통해 참가방법과 코스등을 문의하며 착실한 대회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코스 및 시상= 광주월드컵 경기장을 출발점으로 하는 대회의 코스는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등 4개 코스다. 풀코스는 광주월드컵 경기장을 출발-송마장-마재중흥아파트 1차(10km 반환점)-서구 문화센터-제2순환도로 옆길-서창교차로(하프 반환점)-극락강 둑길-서창파출소-대촌지-대촌사거리-고싸움놀이 전수관-남평교(풀 반환점), 이후 동일 주행선으로 끝인 하게 돼 있다. 하프코스·10km코스는 풀코스와 같은 코스로 주행-반환점까지 진행-동일 주행선으로 끝인하게 돼 있다. 5km는 월드컵 경기장-원광대병원 4거리-송마장-짚뽕터널 입구-월드컵 경기장으로 돌아오

면 된다. 시상은 시상쪽을 대쪽 내려 보다 많은 참가자들에게 시상 품이 돌아가도록 했다. 개인시상은 전부분 1~30위까지 시상한다. 풀코스 남·여 1~3위는 상금 각각 50만원, 40만원, 30만원과 상장, 트로피를 제공하고 4~30위까지는 상장과 부상품을 수여한다. 하프코스는 남·여 1~3위까지 각각 상금 40만원, 30만원, 20만원과 상장, 트로피를 제공하고 4~30위까지는 상장과 부상품을 수여한다. 10km 남·여 1~3위는 각각 상금 30만원, 20만원, 10만원과 상장과 부상품이 주어지며 4~30위까지는 상장과 부상품이 주어진다. 5km 남·여 1~3위는 20~10만원선의 상품과 상장, 트로피를 수여하고, 4~30위까지는 상장과 부상품이 수여된다. 특별상으로는 최고령 참가자상(10km 이상 각 부문별 남·여 각 1명씩)과 원양부상이 수여되는데 완주자에 한해 제공된다.또한 포토제닉상과 행운상(42명) 등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참가비는 플·하프·10km는 3만원이며 5km는 1만원, 매니야부는 1만5천원이다. 20인 이상 단체참가자는 10%할인이 되고, 50인 이상은 20% 할인우대 해준다. ▲신청방법=접수순으로 각 부문 인원제한은 없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참가비를 무통장 입금한 뒤 광일마라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FAX(062-222-0195)를 이용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무등빌딩 16층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으로 하면 된다. 입금계좌는 ▲농협 617-17-002371, ▲광주은행 001-107-437903등으로 예금주는 광주일보사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아쉬운 3위'

월드컵 여자골프대회

파라과이 1위, 미국 2위

한국여자골프가 제3회 월드컵골프대회 마지막 팽타를 휘두르며 선두 추격전을 펼쳤지만 정상 등극을 아쉽게 다음 기회로 미뤘다.

한국의 김영(27)과 신지애(19·하이마트)는 22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시티의 게리 플레이어 골프장(파72·6천466야드)에서 끝난 대회 마지막 3라운드에서 더블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 7개를 합작하며 5언더파 67타를 스코어 카드에 적어냈다.

이로써 사흘간 합계 1언더파 287타로 대회를 마무리한 한국은 3위에 올랐다.

제1회 대회에서 공동 준우승, 제2회 대회에서 5위를 했던 한국은 세번째 도전에서 우승을 노렸지만 전날 2벌타를 받는 등 5오버파를 기록한 부진이 너무 컸던 탓에 아쉽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홀리타다 그라나다와 셀레스테 트로체가 환상의 폼비를 이룬 파라과이는 마지막 날도 7언더파를 치는 절정의 샷 감각을 보



신지애가 21일 열린 여자 월드컵 골프대회 16번홀에서 버디 퍼트 후 그린에 무릎 꿇고 있다. /연합뉴스

여준 끝에 사흘 연속 선두를 지키며 최종 합계 9언더파 279타로 이 대회 첫 우승컵을 안았다. 대회 이틀째부터 관客的 샷을 날린 줄리 잉스터와 팻 허스트가 포진한 미국은 최종 합계 2언더파 286타로 2위를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규혁 '빙속왕'

500m·1,000m 기록 합계 종합 1위

세계스프린트선수권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말왕' 이규혁(27·서울시청)이 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스프린트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우승을 일궈냈다.

이규혁은 22일(한국시간) 새벽 노르웨이 하마르 올림픽홀에서 펼쳐진 대회 마지막 남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35초04로 3위를 차지한 뒤 1,000m 2차 레이스에서도 1분08초69로 2위에 오르면서 총점 138.775를 획득, 전날 종합 1위였던 페카 코스켈라(핀란드·138.840점)를 0.065점 차로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라섰다.

500m와 1,000m 기록 합계로 순위를 가리는 세계스프린트선수권대회에서 한국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배기태(1990년), 김윤만(1995년) 이후 이규혁이 세 번째다.

특히 이규혁은 이날 역전우승으로 지난해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자 1,000m에서 간발의 차로 4위를 차지하면서 동메달을 놓쳤던 아쉬움을 씻었다.

전날 종합 2위에 머물렀던 이규혁은 이날 500m 2차 레이스에서 35초04로 역주하면서 3위를 차지했지만 '우승다름'을 벌이던 코스켈라가 34초94로 1위를 차지하면서 우승이 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자신의 주종목인 1,000m 2차 레이스를 승부처로 잡은 이규혁은 16번째 조 아웃코스에서 출발해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니 데이비스(미국·1분08초38)에 0.31초 뒤지는 1분08초69로 2위를 차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웨덴 일간지 "소렌스탐 은퇴 시기 저울질"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37·스웨덴)의 은퇴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스웨덴 타블로이트판 일간지 '아프톤블라데트'가 정상의 여자프로골퍼에서 골프 코스 디자이너, 사업가로 변신하고 있는 소렌스탐이 최근 '나는 골프에 지쳤고 아이를 갖고 싶다. 지금이 적당한 때인 것 같은데 골프를 병행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은퇴설이 불거졌다.

그러나 소렌스탐은 곧 이러한 보도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소렌스탐은 은퇴설을 부인하면서 "은퇴를 입밖에 낸 적이 없고 가정을 꾸리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2007 시즌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AFP통신도 은퇴설과 관련해 "그는 지난 해 12월 중순부터 아예 골프클럽을 잡아보지도 않았으며 2월 초에나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며 소렌스탐의 골프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음을 알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규혁이 22일 새벽 노르웨이 하마르 올림픽홀에서 펼쳐진 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스프린트선수권대회 마지막 남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상엽 빙속 男 1,500m '은'



동계대회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전문 여상엽(한국체대)이 2007 토리노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상엽은 22일(한국시간) 새벽 이탈리아 토리노 오발링고토에서 펼쳐진 남자 1,500m 결승에서 1분48초08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엔리코 파브리스(이탈리아·1분45초66)에 2초42 뒤지는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함께 출전한 모태범(한국체대 입학 예정·잠실고)은 1분48초49로 3위를 차지해 이틀전 500m에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동메달을 따냈다.

지난해 토리노동계올림픽 남자 1,500m 금메달리스트인 파브리스는 이날 대회 신기록으로 전날 남자 1,000m 우승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또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 소식을 알렸던 이주연(한국체대)은 여자 5,000m 결승에서 7분20초37를 기록해 안나 나탈리아 로키타(오스트리아·7분14초72)와 모니에크 클레인스만(네덜란드·7분17초15)에 이어 동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한국은 22일 현재 폴란드(금4 은2), 이탈리아(금4 은1 동1), 오스트리아(금4), 러시아(금3 은4 동4), 벨로루시(금3 은1 동1)에 이어 금메달 2, 은메달 6, 동메달 4개로 6위에 랭크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